

무안군, 전세대출 이자 지원...인구증가 정책 시동

관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대상
연간 최대 100만원 최장 3년간
신청방법 20일 홈페이지 안내
주거비 부담 완화·경제적 안정

무안군이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영광군민의 날 기념식 연다
내달 5일 영광군청

영광군이 오는 9월 5일 영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48회 영광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로 48회째를 맞이하는 영광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군민헌장 낭독, 군민의 상 및 행남효행상 시상, 군민의 노래 제창과 2024년 영광방문의 해를 맞아 불갑산상사화축제, e모빌리티 엑스포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민의 상과 행남 효행상 시상은 읍면 추천 대상자를 8월 중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군민의 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군민 화합에 공헌한 사람에게 표창패를, 행남 효행상은 경로효친 사상을 높인 사람에게 표창패와 부상(성인 150만원/학생 50만원)을 수여하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군민의 날 행사는 문화·예술 행사와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는데, 올해는 문화·예술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로 인한 지역사회의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기념식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화순군, 9월27일까지 신청

화순군은 지역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접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지역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재원을 마련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4년8월5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전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이거나, 졸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이다.

해당 지원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대출의 이자 전액을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접수기간은 9월 27일까지이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 또는 화순군 누리집(www.hwasu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김선중 기자**

18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김봉성 군의원(행정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대출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추진하며 당초 신혼부부 5년, 다자녀가정 7년 이내의 조건을 신혼부부 7년, 다자녀가정 10년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조건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수차례 논의한 끝에 지난달 최종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

다.

해당 사업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최대 3년간 주택 전세대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신혼부부(무안군 내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 7년 이내),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혼인신고 10년 이내)이다.

세부내용과 신청방법은 20일 무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 내 인구 증가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연 기자

해남군 '찬기파랑가' 공연 개최
김덕수 사물놀이패

해남군은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와 함께하는 '신명의 꽃-찬기파랑가' 공연을 9월 3일과 4일 이틀간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열린다. 김덕수패 사물놀이와 최고의 기량을 갖춘 예인들이 참여해 다양한 악기들이 조화를 이룬 우리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명의 꽃-찬기파랑가'는 총 2회에 걸친 두 마당으로 구성된다. 3일에는 김덕수를 중심으로 사물놀이 진쇠를 비롯한 길놀이, 비나리, 판굿 등 공연으로 관람객들이 국악의 정수를 맛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일에는 김덕수와 친구들이란 주제로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앙상블 시나위와 색소폰연주가 제이슨 리 등 다양한 장르의 스페셜 게스트가 참여해 퓨전음악을 협연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의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1인 10매까지 예매가 가능하며 관람료는 1만원(해남군민 5000원)이다.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전화 예매(1800-4746)도 가능하다. **해남=전연수 기자**

21일부터 하반기 장학생 선발
무안군승달장학회

(재)무안군승달장학회(이사장 김산)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2024년도 하반기 승달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요건은 공고일인 8월 13일 기준 부모 모두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자녀인 경우 가능하다.

선발 규모는 성적우수(고등학생, 대학생), 저소득, 예체능, 다자녀가정(중·고등학생, 대학생), 체육꿈나무,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중·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50만원이 지원되며 총 장학금 규모는 약 2억1400만원이다.

이번 선발에서는 기존과 달리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자도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주거비 분야의 장학금을 신설하여 광주·전남 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여건 속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분야별로 학업 성적과 생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서류 심사과 이사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 장학생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남악 주민의 경우 편의 제공을 위해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무안군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061-450-533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산 이사장은 "우수한 우리 지역 인재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지난 10일 전남도장터유랑단이 영암읍 영암5일시장 특설무대에서 전통 문화공연을 열었다.

영암군 제공

전남장터유랑단, 영암5일시장서 공연

전남도장터유랑단이 지난 10일 영암읍 영암5일시장 특설무대에서 영암군민에게 흥이 넘치는 전통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18일 영암군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가 운영하

고 있는 장터유랑단은 지역을 돌며 풍물놀이, 퓨전국악, 동동구구무, 줄타기 등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공연은 영암군의 초청으로 이뤄졌고 장터유랑단은 영암5일시장을 찾은 방문객과 상인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

물했다.

공연을 지켜보던 시장 방문객들은 풍물놀이에 어깨춤을 들썩이고 전통민요를 따라 부르고 줄타기에 탄식과 환호성을 보내며 한여름 무더위를 함께 잊었다.

장터유랑단 유치와 함께 영암군은 전통시장 고유의 향수와 추억을 살리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진행해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영암=한교진 기자**

강진군, 지역사회 협력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등

강진군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8월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고독사 위험군이 늘어나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

군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단계적 시범

사업을 추진해, 고독사 위험에 처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고독사 위험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사랑의 거저귀 배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사후관리 등 5단계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와 연계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고독사 위험군 110가구에 대해 전력사용량

및 통신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평상시와 다른 사용 패턴 확인 시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알림으로 전달되어 담당자가 안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고독사 위험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11가구에 소규모 집수리, 낙상방지 용품 설치, 냉방·난방 용품 설치, 1인용 식탁·소파를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서비스로 군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독사의 위험에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탄소중립형 녹조관리 기술 운영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주인호)는 태양광 에너지와 융합한 녹조관리 신기술을 혁신기업과 개발하기 위해 영·섬유역 내 관리 중인 댐에서 테스트베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원댐에 녹조 발생 대응을 위해 다양한 물환경 설비를 운영 중이다.

댐저수지 상류 만곡부 등에 발생하는 녹조의 특성으로 인해 부지 확보 및 전력

공급 등 물환경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제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운영 시에도 전기 사용료로 인해 상시적으로 가동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중립형 녹조기술 테스트베드'는 녹조제감 설비에 태양광 시설을 연결해 전기시설 기반의 제약 없이 녹조 발생지역 어디든 운영이 가능한 에너지자립형 녹조관리 기술을 테스트한다.

주요 기술은 설비 에너지원을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태양광 녹조제거선, 태양광 물순환장치, 태양광 수면포기기로 8월부터 실제 현장에 설치하고 2개월간 기술성능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테스트베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친환경 녹조저감 신기술 확보와 물환경설비의 전력비 절감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주인호 영·섬유역본부장은 "이번 테스트베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